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천재 ◀

I 언어와 매체 언어

- 1. 언어와 국어 (30문제)----- 1쪽
- 2. 매체와 매체 언어 (16문제)----- 14쪽

II 단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표현

- 1. 단어와 국어 생활 (190문제)----- 21쪽

III 국어의 규범과 매체 언어의 성찰

- 1. 국어의 음운과 표준 발음 (145문제)----- 74쪽
-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82문제)----- 115쪽

IV 문장과 담화, 매체 문화의 향유

- 1.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134문제)-----141쪽
- 2. 담화의 다양한 갈래 (13문제)----- 178쪽
- 3. 매체의 수용과 향유 (7문제)----- 185쪽

◆빠른 전체 정답 -----190쪽

◆해설 -----193쪽

교재 버전: 2021.02.22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천재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천재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앓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천재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천재 ◀

망망의 꿈 한뼘이 된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혹은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1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

소단원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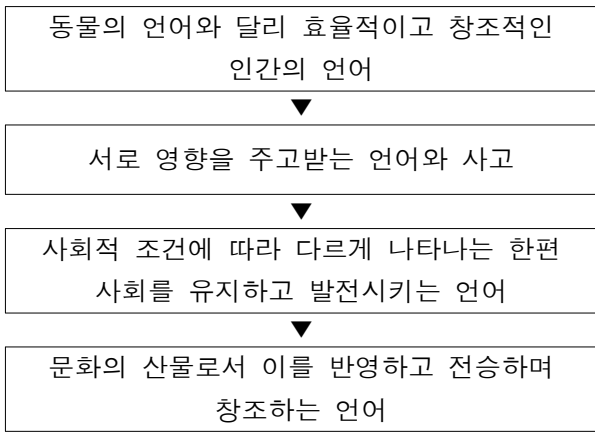
학습의 주안점

- 언어와 사고의 상호 영향 관계 탐구하기
- 언어와 사회·문화의 관계 탐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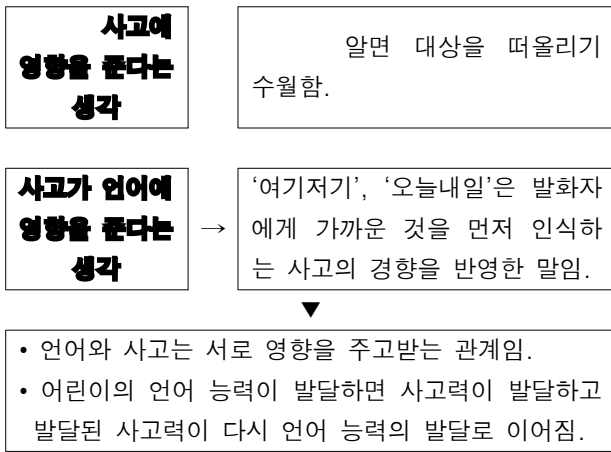
소단원 안내

- 언어의 특성
 - 언어와 사고
 - 언어와 사회
 - 언어와 문화
- ▶ 이 소단원은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했다.

비평글의 짜임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사회의 관계

- 언어는 지역이나 성별, 세대, 연령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 신분 제도가 있었던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신분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I-1. 언어와 국어

■ 언어의 개념

- 언어(言語):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
- 언어의 본질

자의성	언어의 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임.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임.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나 뜻이 변하기도 하고,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함.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음.
규칙성	일정한 규칙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함.

■ 언어와 사고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함.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예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여기저기’, ‘국내외’ 등의 표현 •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 “밥.”(단어) → “밥 주세요.”(문장) → “배고픈데 밥 주세요.”(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

■ 언어와 사회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감.
-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함.



사회적 특성이 언어에 반영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부추’ →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상,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췌우리(제주), 엄지(함경) •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	--

■ 언어와 문화

-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함.
-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됨.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예	나라마다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특성 등에 따라 어휘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우리말에는 친족어가 발달함.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이나 흰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는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음.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예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자료와 같은 문화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됨.

■ 국어의 특징

● 음운의 특징

- 예사소리(ㄱ, ㄷ, ㅂ), 된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가 서로 대립함.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대부분의 서양 언어는 ‘g, k’, ‘d, t’, ‘b, p’처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대립함.
- 마찰음 ‘f, 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음.
→ ‘free’는 ‘프리’, ‘violin’은 ‘바이올린’, ‘thrill’은 ‘스릴’로 적음.
-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함.
→ ‘spring’을 ‘스프링’으로 적음.

● 어휘의 특징

-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뉨.
-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의성어와 의태어, 색채어가 발달함.
→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영어의 ‘aunt’ →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 의성어, 의태어: 졸졸/줄줄, 찰칵/철컱, 감감/깜깜/깜깜 등
→ 색채어: 영어의 ‘red’ → 붉다, 빨갳다, 빨갳다, 새빨갳다, 불그스름하다, 불그레하다, 불그죽죽하다 등

I-1. 언어와 국어

● 문법의 특징

-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서로 나타남.
-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함.
-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옴.
-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 높임 표현이 발달함.

● 담화의 특징

- 주어, 목적어 등 문장의 주요 성분이 흔히 생략됨.
- 인간이 표현의 중심에 서기보다 상황이 우선적으로 드러남.
→ 국어에서는 “단추가 떨어졌다.”로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I’ve lost a button.”으로 표현함.
- 공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이 발달함.
→ “ 창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간접 화행 표현, “내일은 못 갈 것 같아요.”와 같은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 등

■ 세계 속의 한국어

●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 한국어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임.(2016년 기준)
-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늘고 있음.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에 응시하는 지원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음.

●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 한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제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중략>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남,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쉼우리 (제주), 염지(함경)’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나라마다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순위·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도 구분하여 8개 이상의 어휘로 나타낸다. 영어는 성별만을 구분하여 2개의 어휘로 나타낸다. 말레이어는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낸다. 이는 남녀와 상하 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원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홍성고등학교 (시음)

1. 밑글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언어의 사회성 ■ 언어의 역사성
- 언어의 기호성 ■ 언어의 자의성
- 언어의 창조성

홍성고등학교 (시음)

2. 밑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언어를 통해 세대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
- 계층적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 사회 양상의 차이에 따라 언어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홍성고등학교 (시음)

3. 밑글과 관련하여 <보기> 기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밥족’,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행족’, 혼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캠족’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벽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 <뉴스워치> 2016년 9월 29일 자 기사

- 언어와 문화가 무관하게 별개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혼족’, ‘혼밥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1인 가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1인 가구’ 현상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결정하고 있다.

공성고등학교 (시음)

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랑’이라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러브 (love)’, 일본어에서는 ‘아이[愛]’, 프랑스어에서는 ‘아무르(amour)’라고 한다. 만약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언어에서나 ‘사랑’이라는 대상이 같은 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는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 ‘뺱’은 포르투갈어의 ‘pão[팡]’를 차용한 외래어이다.
- ‘음악’을 ‘춤’이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 표준어로는 ‘감자’라고 부르는 식물을 제주도 방언에서는 ‘지실’이라고 부른다.
- ‘지흥이는 지금 행복해.’라는 문장을 ‘지흥이는 행복 지금해’라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어의 ‘라이스(rice)’는 꽤나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낱알 중에 실한 놈을 잘 말려 겨울을 난 후 썩을 틈이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만큼 자라면 모를 찢어 모내기를 한다. 애벌, 두벌, 세 벌의 김을 매며 잘 키우면 그것이 벼다. 가을이 되어 알곡이 누렇게 익고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쯤 베어 낱알을 떨어내면 그것도 벼다. 방앗간에서 왕겨를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몇 차례 등겨를 벗겨 내면 백미가 되는데 이것을 쌀이라 부른다. 쌀을 안쳐 불을 때다 뜸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일 뿐이다. 삼시 세끼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닦할 것이 아니라 밥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다시 볼 일이다.

‘요리를 하다’와 마찬가지로 ‘밥을 하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밥을 짓다’가 제격이다. 음식은 그저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만 밥만은 ‘만들다’를 쓰지 못하고 ‘짓다’를 쓴다. ‘짓다’는 집, 옷, 짚, 농사, 매듭, 이름, 죄 등을 목적으로 삼아 ‘만들다’보다는 좁은 영역에서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대해 쓴다. 밥도 ‘짓다’를 쓰니 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뜸’은 밥을 지을 때만 활용하게 되는 독특한 조리법인데, 그 뜸이 일상에서 ‘뜸을 들이다’란 말로 쓰이고 있으니 이 역시 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밥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①우리에겐 밥은 그저 음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밥이 있어야 국과 찌개, 그리고 반찬이 의미가 있다. 밥이 밥상의 중심이기에 밥이 결국 음식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다.

공성고등학교 (시음)

5.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벼의 낱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이 될까?
- 영어의 ‘라이스(rice)’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 한국인과 서양인이 ‘밥’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 ‘라이스(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가짓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 우리에게 ‘밥’이 삶의 원천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광성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모’, ‘벼’, ‘밥’을 모두 ‘라이스(rice)’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서구에는 밥에 대한 관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군.
- ‘밥 먹자’라고 할 때에 ‘밥’은 단순한 ‘라이스(rice)’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군.
- ‘밥’을 ‘짓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인에게 ‘밥’이 매우 중요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군.
- 영어의 ‘라이스(rice)’와 달리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는 우리 말 ‘밥’에는 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대상에 대한 애착이 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화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이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7.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어머니가 차려 주시는 밥이 그리워.
- 내일 밥 약속은 참석하기 어렵겠어.
- 밥 지을 때 뜸들이는 걸 깜박했어.
-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 언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시지요.

대광고등학교 (서울)

8.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필’을 개인 마음대로 ‘흰 연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없다.
- ‘집에 오다’는 바른 표현이지만, ‘집에 먹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과거에 사용하던 ‘뫼’라는 고유어는 ‘산(山)’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다.
-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라 일컫는 대상을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한다.
-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쌀’이라는 문자와 [쌀]이라는 음성을 사용한다.

대광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통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엄마, 우유.”라고 말하던 아이가 차츰 말이 늘어 “엄마, 우유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 남자가 “나는 내일부터 너를 사랑했어.”라고 말하자 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해 돌아갔다.

(다) “비가 오는데, 슈룹(우산)도 없이 가다니 참 어엿브네(가역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 (가)는 기존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경우이다.
- (나)는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일정한 체계와 규칙을 따라야 함을 보여 준다.
- 모두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혼자 ‘공책’이라 부르는 경우도 (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다)는 언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 (다)에서 ‘어엿브네’는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

▶ '가르침'은 어근(가르치)이 하나이므로 ㉠합성어는 아님.

40.㉡

▶ ㉠(동사)과 ㉡(명사)은 다른 품사임.

41.㉡

▶ '눈물'은 '눈(의) 물'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

43.㉠

▶ 대인배: 파생의 방식

44.㉢

▶ ㉡은 반의 관계가 아님.

45.㉠

▶ ㉠의 '뜨고'는 '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의미임.

46.㉣

▶ '가누지 못하고'로 수정.

47.㉢

▶ 버스보다(격조사)

49.㉡

▶ ㉠, ㉡, ㉢: 동사

50.㉠

▶ ㄱ은 ㉡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바뀐 것임.

52.㉡

▶ '옛-'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음.

53.㉢

▶ ㄷ. '진상'은 단일어임. ㅂ. '쌈'은 줄임말일 뿐, 새말은 아님.

55.㉢

▶ ㉡에 들어갈 말은 '반의어'이다.

56.㉠

▶ 굶다-굶으니-굶어서~(규칙 활용), 굶다-구워-구우니~(불규칙 활용)

59.㉢

▶ *서은 : ㄱ의 '와'는 격조사임. *준서 : ㄹ의 '만(보조사)의(격조사)'

60.㉡

▶ ㄷ. ㉡은 수 관형사로 의존 명사와 결합함.

61.㉡

▶ ㉡에 해당하는 자음은 없음.

63.㉡

▶ ㉡에 있는 형식형태소(에, 를, 는, 가, 다)의 개수는 5개이다.

64.㉢

▶ '벽돌집'을 '벽돌'과 '집'으로 분석.

65.㉣

▶ ㉠, ㉡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모든(관형사)'과 '조용한(형용사)'의 품사는 서로 다르다.

66.㉡

▶ ㄱ. [A]는 ㉡에 따라, 어간 '틀리'에 어미 '었'을 붙여 쓴 것임. ㄴ. [D]는 본용언(매달)+본용언(있다)의 구성임.

67.㉡

▶ ㉠은 미지칭임.

■ ㉡은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을 지칭하고 있다.

■ ㉢은 3인칭 대명사인 '당신'으로 바꿔 써야 한다.

■ ㉣은 '학생'인 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님.

68.㉠

▶ 잘못된 모두 명사로만 쓰임.

69.㉡

▶ ㉡의 '이'는 보어의 자격을 부여함.

71.㉣

▶ '사기를 드높이다'에서 '드높이다'의 짜임을 분석해 보니, 한정적 접사(드)와 지배적 접사(이)를 모두 찾아볼 수 있음.

72.㉣

▶ ㄴ: '알보고'는 파생어임. ㄷ: [D]에 나타난 합성어(얼어붙은)의 개수(1개)와 파생어(날개, 녹이고)의 개수는 다르다.

75.㉢

▶ ㄷ : '와'는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격조사임.

77.㉠

▶ 뒤(접사)짚(어근)었다

79.㉢

▶ '노름'은 직업이나 직책이 아니기에 ㉡에 해당하지 않음.

80.㉣

▶ '춤이'에서 '춤'은 동사임.

81.㉡

▶ '푸르고 맑았다'는 세 개의 형식 형태소(고, 았, 다)와 다섯 개의 의존 형태소(푸르, 고, 맑, 았, 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6.④

▶ ‘짜고들’에서 ‘들’은 보조사임.

88.④

▶ • 난 자기(2인칭)가~ • 학생들은 자기(3인칭)

89.③

▶ ㉠의 ‘달았다’는 ‘-자’, ‘-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동사이다.

90.④

▶ ㉠ 푸르다: 어미 불규칙 활용 ㉡ 울다: 규칙 활용 ㉢ 굽다: 어간 불규칙 활용 ㉣ 까맣다: 어간 어미 불규칙 활용 ㉤ 하다: 어미 불규칙 활용

91.③

▶ ■ ㉠ : 부사 ■ ㉡ : 명사 ■ ㉢ : 관형사 ■ ㉣ : 형용사

92.①

▶ ㉠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존명사임.

93.②

▶ ㉡만이 형용사이고 나머진 조사임.

94.②

▶ ■ ㉠의 어근은 ‘오-’와 ‘가-’이고, 어간은 ‘오가-’이다.
 ■ ㉡의 어근은 ‘숯-’ 어간은 ‘치숯-’으로 다르다.
 ■ ㉢의 어간은 ‘줄이-’이고, 어미는 ‘-며’이다.
 ■ ㉣의 어간은 ‘떡-’이고, 어미는 ‘-어라’이다.

95.⑤

▶ ㉡의 ‘많+았+다’(형태소 3개)와 ㉢의 ‘날+리+었+다’(형태소 4개)의 형태소 개수는 다르다.

96.③

▶ ‘첫사랑’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97.③

▶ ‘뜯소문’은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와 체언이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98.④

▶ ‘되살리다’, ‘숨기다’에 결합한 접미사(리, 기)는 어근에 사동의 의미를 더해준다.

100.①

▶ 컴맹’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101.①

▶ ‘더하다’가 동사로 쓰일 때만 ‘합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음.

103.②

▶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는 치다’㉠의 의미를 이용한 것이다.

104.④

▶ ‘사이’는 공간과 ‘틈’은 시간과 관련됨.

105.③

▶ ‘가’와 ‘집’은 중복된 의미임.

106.④

▶ ㉣만이 수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수사임.

107.②

▶ ㉡만이 격조사로 격을 더하지만 나머지는 접속 조사로 단어를 이어준다.

108.③

▶ ‘굽다’는 규칙 용언이다.

109.②

▶ ㉡만이 뒤의 단어를 꾸미지만 나머지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

110.①

▶ ㉠과 ㉡, ㉢은 동사이다.

111.⑤

▶ ‘마개’는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애)가 어간(막-)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그 어간의 원형(막-)을 밝혀 적지 않은 예이다.

112.①

▶ ‘눈(어근)물+(어근)’, ‘첫(어근)+사랑(어근)’

114.③

▶ *울보(명사): 울다(동사)+보(명사화 접미사), *글썩거리다(동사): 글썩(부사)+거리(동사화 접미사)+다, *사람답다(형용사): 사람(명사)+답(형용사화 접미사)+다 → 접미사로 인해 품사가 바뀌었으니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115.④⑤

▶ ㉣ *높푸른=높(용언의 어간)+푸르(용언의 어간)+ㄴ → ㉡에 해당함. *우러러보니=우러르어(용언의 활용형)+보(용언 어간)+니 → ㉢에 해당함.
 ㉤ *오르내리며=오르(용언의 어간)+내리(용언의 어간)+며 → ㉡에 해당함. *이른바=이른(용언의 활용형)+바(명사) → ㉢에 해당함.

121.⑤

▶ 이르다 : 이르(어간)+어(어미)=이르(어간)+러(어미)

122.③